

“시·도 통합재정 청년친화 설계로 청년인구 유출 막아야”

광주경총 “재정 연 5조원, 고용 인센티브 중심 재설계 필요”
‘통합 청년 인재 아카데미’ ‘청년 전용 트랙’ 구축 등도 제안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행정 통합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경제계에선 시·도 행정 통합으로 확대되는 재정과 시장 규모를 청년 친화 구조로 설계한다면 행정통합 효과도 극대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가정할 경우 청년 일자리 확대의 핵심은 ‘통합으로 늘어나는 재정·시장 규모를 어떻게 청년 친화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광역경제권을 전제로 대규모 투자 유치

와 산업 집적을 통해 질 좋은 상용 일자리를 늘리고 연간 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통합 재정을 청년 고용 인센티브와 인력 양성에 전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또 산업·투자 정책과 연계한 청년 고용 확대 방안으로 통합특별시 차원의 ‘청년고용의 무·인센티브 패키지’ 도입도 제안했다. 빚그레산단·에너지밸리·여수국가산단·첨단3지구 등 통합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채용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세제 혜택·보조금 지원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고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 차원에서 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경

총의 설명이다.

미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청년 전용 트랙’ 구축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전략 산업 클러스터에 청년 전문 연구직, 청년 산학 장기 인턴,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묶은 전용 프로그램을 지정·지원해 청년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취업 지원이 아닌 연구·창업·장기근속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야 지역에 머무는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경총은 기존 광주·전남 청년 정책의 통합 과 고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총은 현재 양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청년 고용·창업·주거·교육 사업을 ‘통합 청년 정책 패키지’로 묶어 중복을 줄이고 재원을 확대해 통합권역 전역에서 동일 기준으로 제공해야 정책 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의 전남 확대 방안도 나왔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는 재직 청년에게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쌓아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합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규모를 키워낸 실질적인 지역 정착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광주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사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직업교육혁신지구 등을 통합권 차원의 ‘통합 청년 인재 아카데미’로 확장하고 전남의 캠퍼스·연구소·기업과 연계한 공동 교육·현장 실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광주경총은 또한 통합 RISE(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글로벌대학,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광주·전남 공동 프로젝트로 설계해 졸업 직전부터 산업 단지, 공공기관, 혁신도시 공기업과 연계한 사전 채용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을 주거·복지와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정책, 문화·복지 사업을 통합권역 전체로 확대해 ‘일자리+주거+생활’ 패키지로 제공하면 광주·전남 내 이탈을 줄이고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채용, 교육·훈련, 창업, 금융·공제, 주거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청년플랫폼 구축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은 통합 특화 산업과 연계한 청년 의무 고용과 인센티브, 기존 청년 정책의 통합·확대, 통합 인력 양성 체계, 주거·복지와 결합된 정책 패키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GGM 공채에 6년간 3만 5000명 지원...1024명 선발

평균 경쟁률 34.1대 1

‘지역 일자리 희망’으로 떠올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설립 이후 6년간 진행된 공개 채용에 3만 5000명에 육박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GGM이 지역 대표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2일 GGM에 따르면 2019년 법인 설립 이후 최근까지 총 20차례 공채를 진행한 결과 연인원 3만 4928명이 지원해 평균 3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3월 예정된 신규 채용에서 40여명이 추가 선발되면 누적 채용 인원은 1024명에 이른다.

GGM은 2020년 6회, 2021년 5회에 걸쳐 총 689명을 채용하며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의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공채를 통해 10~57명을 꾸준히 선발해 왔다. 올해 1차 기술직·일반직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에는 1597명이 지원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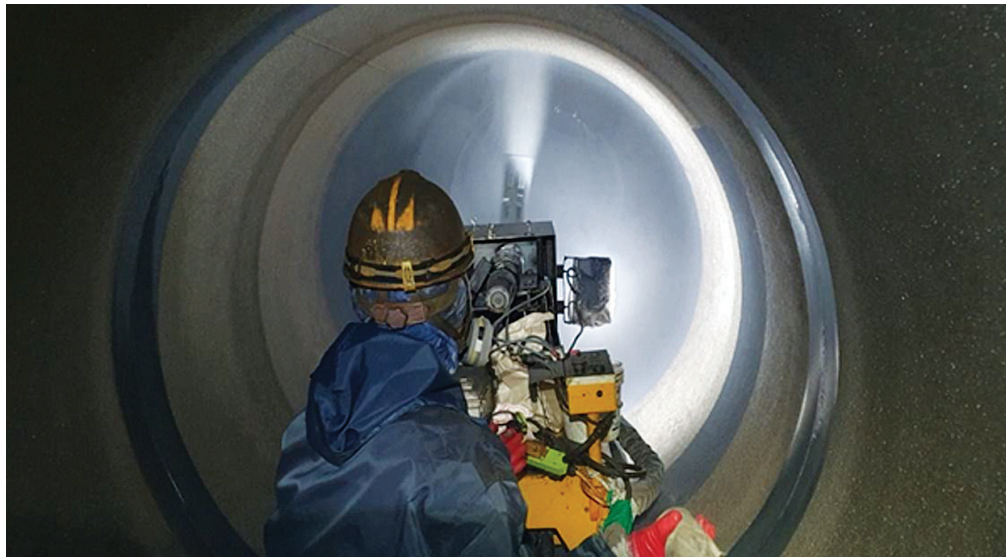
지원자 구성도 다양해졌다. 올해 1차 공채에는 고졸부터 전문학사, 학사, 석사, 해외 유학파까지 폭넓은 학력의 인재가 몰렸고 연령대 역시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창기인 2020~2021년 공채 당시에는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가 95%에 달했지만 이번 공채에서는 타 시·도 출신 비중이 12%까지 확대됐다. 합격자 유입 시 지역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원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어지고 해외 인재까지 가세하면서 GGM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공채 지원자의 33.7%(538명)는 과거 불합격 이후 재도전한 지원자로 집계됐다. 일부 지원자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발성 관심이 아닌 장기적 선호가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직 후 재지원하거나 형제·부부가 함께 근무를 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GGM 관계자는 “다양한 학력과 연령층에서 지원자가 몰린 것은 세계 자동차 위탁 생산 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GGM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쾌적한 근무 환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인 동시에 지역 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2교대 근무 체제 추진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관계자가 ‘광양 1단계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광양 구간(22.3km) 관로 개량 공사를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수자원공사, 광양 1단계 노후관 개량 완료

산단 등 안정적 용수 공급 확보

한국수자원공사(공사) 영·섬(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양 1단계 공업 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중 광양구간(22.3km)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준공 전 시설 사용 승인을 마쳐 새롭게 정비된 관로를 즉시 가동할 수 있게 돼 국가 산업의 중추인 여수·광양 산단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214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980년대 설치돼 40년 이상 지난 노후 관로를 개량·교체해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에 공업 용

수를 중단 없이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번에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광양 구간(다압 취수장·진성리분기)은 전체 사업의 핵심 노선으로 노후 관로에 의한 파손·누수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김선호 영·섬유역본부장은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단지 용수 공급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막중한 임무”라며 “철저한 공정 관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은 사업 구간도 적기에 완료해 지역 내 기업들이 물 걱정 없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핑크 페스타’ 키친웨어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다양한 하트 모양 냄비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르쿠르제 매장은 설 명절과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2월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핑크색 키친웨어를 만나볼 수 있는 ‘핑크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하트 모양의 핑크색 냄비, 머그, 프라이팬, 찬기 등 다양한 키친웨어를 30~50% 할인한다. 더불어 반려동물용을 위한 핏 시기도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다양한 하트 모양 냄비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르쿠르제 매장은 설 명절과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2월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핑크색 키친웨어를 만나볼 수 있는 ‘핑크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하트 모양의 핑크색 냄비, 머그, 프라이팬, 찬기 등 다양한 키친웨어를 30~50% 할인한다. 더불어 반려동물용을 위한 핏 시기도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남도장터, 전남 쇼핑몰 통합 경쟁력 강화...시·군 물 연합 업무협약

기능 공유·공동 마케팅 등 협력

남도장터가 전남 통합 쇼핑몰 기능을 강화해 지역 농수산물 홍보·판매에 나선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는 지난 28일 고흥·영암·완도군과 ‘남도장터·시군 물 연합 시스템 업무 협약’ (사진)을 맺고 공공형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은 ▲주문·결제·배송·정산 등 주요 쇼핑몰 기능 공유 ▲지역화폐 사용 등 신규 기능 개발 ▲공동 마케팅·프로모션 연계 확대 ▲쇼핑몰 입점 상품 품질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100만 명 규모의 통합회원 확보할 수 있게 돼 공동 마케팅과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운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시·군별 쇼핑몰을 이용할 때마다 회원 가입을 해야 했지만 연합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 번의 가입만으로 남도장터와 3개 시·군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측면에서도 남



도장터가 구축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문·발주·정산 일괄 처리가 가능해져 쇼핑몰 운영비도 기존보다 30%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남도장터는 올해 총 9개 시·군몰과 추가로 연합 시스템 구축에 나서 ‘공공형 종합 유통 플랫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도 오는 2027년까지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연합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전남형 온라인 유통 생태계’ 구축 계획을 마련중이다.

한편, 남도장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관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라 설 명절기간(2일~16일) 배추·무·포도·감귤(만감류)·소·돼지·닭·계란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중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남도장터는 7년 연속으로 ‘2026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가를 지원하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250만 원 한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은 실명으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잔액 한도가 250만 원으로 설정돼 있

어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에 맞춰 가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금리 0.5%에 결산 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연 0.5%P)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하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입금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5000선 내준 코스피 장증 사이드카 발동

코스닥도 1100선 무너져

새해 들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상승했던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로 폭락 내려앉았다. 코스피는 5000선을 내렸고, 코스닥도 1100선 아래로 추락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4.69p(5.26%) 내린 4949.67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101.74p(1.95%) 하락한 5122.62에 출발한 뒤 지속 하락했다. 오전 중 5100선이 무너졌고, 오후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4조원대 순매도세를 보이는 등 ‘패닉 셀링’ 현상마저 불거지며 4900대까지 내려앉았다.

코스피가 장중 지속 급락 추세를 보이면서 오후 12시 31분에는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등·급락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피200 선물이 전일 종가 대비 5% 하락세를 1분 이상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2151억원, 4072억원씩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5504억원 순매도하며, 전일 대비 51.08p(4.44%) 내린 1098.36에 장을 마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4949.67 (-274.69) |
| ↓ 코스닥 | 1098.36 (-51.08) |
| ↑ 금리 (국고채 3년) | 3.152 (+0.014) |
| ↑ 환율 (US D) | 1455.70 (+16.20) |
| <오후 5시 40분 기준> | |